

B521

진양호를 중심으로한 남강의 어류상에 관하여

양홍준 · 남명모*
경북대학교, 청명내수면 연구소

1993년 5월부터 1993년 11월까지 남강의 어류상을 조사한 결과 분포가 확인된 어류는 11과 26속 32종이었다. 채집된 어류 가운데 한국고유종은 쉬리 *Coreoleuciscus splendidus*, 긴몰개 *Squalidus gracilis majimae*, 참몰개 *Squalidus chankaensis tsuchigae*, 참중고기 *Sarcocheilichthys variegatus wakiyae*, 각시붕어 *Rhodeus uyekii*, 줄납자루 *Acheilognathus yamatsutae*, 들마자 *Microphysogobio yaluensis*, 새코미꾸리 *Cobitis rotundicaudata*, 수수미꾸리 *Niwaella multifasciata*, 자가사리 *Liobagrus mediadiposalis*, 꺾지 *Coreoperca herzi*, 동사리 *Odontobutis platycephala*로 12종 이었다. 이들 종은 특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. 우점종은 밀어 *Rhinogobius brunneus* 34.46%, 칼납자루 *Acheilognathus limbata* 10.04%, 수수미꾸리 *Niwaella multifasciata* 9.25%로 우점이었으며, 그 다음으로 피라미 *Zacco platypus* 4.35%, 갈겨니 *Zacco temmincki* 3.92%, 각시붕어 *Rhodeus uyekii* 4.12%, 들마자 *Microphysogobio yaluensis* 3.72%로 우점이었다. 상대풍부도가 0.1% 이하인 희소종은 참중고기 *Sarcocheilichthys variegatus wakiyae* 0.08%, 뱀장어 *Anguilla japonica* 0.08%, 가물치 *Channa argus Cantor* 0.04%로 출현이 극히 빈약하였다. 조사지역의 종다양성을 분석한 결과 종다양도는 1.090, 균등도는 0.724, 우점도는 0.152로서 서식처가 안정되어 다양한 어류가 서식하고 있었다.

B701

근해에 서식하는 *Oithona similis* (Copepoda: Cyclopoida)의
계절적 분포, 체장변화 및 성비에 따른 번식주기의 고찰

유광일, 임동현*
한양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물학과

고리 근해에서 1988년 3월부터 1989년 2월까지 1년동안 채집된 시료를 사용하여 *Oithona similis*의 계절에 따른 생물량의 변화를 연구하였다. 이 종은 봄에 최대량을 나타내었고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매우 낮은 밀도로 관찰되었으며, 초겨울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. 이를 마산만과 비교하여 볼 때, 우리나라 근해에 있어 *O. similis*의 계절적 변동은 일정한 것 같다. 체장은 여름에서 가을까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, 겨울로 갈수록 증가하였다가 다시 봄이 되면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체폭은 체장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, 봄철에 가장 높았다. 즉 겨울 개체군의 개체들이 봄 개체군의 개체들보다 몸체가 가늘었다. 12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알주머니를 가진 암컷이 빈번하게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, *O. similis*의 번식기는 대략 겨울부터 다음해 초여름까지로 국한되는 것 같다. 성의 비는 계절 및 정점에 따라 다양했다. 평균 성비는 번식기에는 0.102였으나, 그 외의 계절에는 0.059로 나타났다. 이러한 결과들로 볼 때, 한국 근해에는 봄세대와 겨울세대등 2세대의 *O. similis*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.